

# 「に行く」목적 구문\*

## - 공기 가능한 명사의 분류와 특징 -

이정옥\*\*  
jungok-ok@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명사 |
| 2. 선행연구 및 문제점 | 4.1 명사의 종류               |
| 3. 연구대상 및 방법  | 4.2 명사의 특징               |
|               | 5. 나오며                   |

주제어: 「に行く」목적 구문(“NI IKU” purpose constructions), 동작성 명사(action noun), 사태 명사(eventive noun), 백과사전적의미 (encyclopedic meaning), 명사의 종류 및 특징 (Classification and Features of Nouns)

## 1. 들어가며

목적을 나타내는 일본어 표현은 다양하나, 다음과 같이 일부의 이동동사와만 함께 쓰이는 구문이 존재한다.

- (1) ガイドが、ステーキを食べに行きましよう、という。 (戦場)
- (2) 家にバッグとお金を忘れてきたから、取りに帰りたいという。 (痴呆)
- (3) 二子玉川に買い物に来たが、中途半端なところで、買い物よりはまずは腹ごしらえ。  
(yahoo!)

이 목적 구문은 1)ます형(연용형)을 취하며, 2) 동작동사의 경우, 「に行く」에 올 수 있으며 3) 이동동사로써는 주로 「行く、来る、帰る、いらっしゃる」 등이 생기(生起)한다는 지적은 중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93448)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1) 「ために、ように、のに」 등

래의 대부분의 연구(莊司1997, 日本語記述文法研究(2009), 庵 他(2000), 栗山(2010) 등)와 일본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예(1-3)과 같이, 목적을 나타내고, 동사에는 이동동사가 오며, 조사「に」앞에는 동사의 ます형, 혹은 일부의 제한된 명사가 오는 경우를 「に行く」목적 구문이라 칭하고자 한다. 이동동사의 대표로 「行く」를 사용하였다.

「に行く」목적 구문에 올 수 있는 명사로는 동작성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며, 일부 사태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정도이다(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9:960), 庵他(2000:215-216),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8:188) 등). 그러나, 실례를 보면 다음의 예(4-6)과 이 「映画, ランチ, ご飯」 등이 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들 명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동작성 명사도 아니며, 사태 명사도 아니다. 즉, 선행연구의 지적과는 달리, 동작성 명사, 사태 명사 이외의 명사도 「に行く」목적 구문에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명사가 올 수 있는지, 이들 명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4) だから、その日ヨーコから映画に行かないかと誘いがあった。(なみた)
- (5) 「私たち、これからランチに行ってくるわ」(夜)
- (6) 中野のいい同僚はマック鈴木にご飯に行こうと誘われたみたい。(週間)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に行く」목적 구문에 올 수 있는 명사의 종류를, 실례를 통해 분류,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및 문제점

일본어의 「に行く」목적 구문은 초급 단계<sup>2)</sup>에서 도입되는 구문으로 한국어의 [-으]러 가다 구문과 대응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경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의 ます형의 경우는 접속법만 숙지하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반면에, 명사의 경우는 한국어의 경우 목적격조사 「-을(를)」를 사용한다는 점<sup>3)</sup>, 명사의 경우 제한된 일부 명사로 국한된다는 점이 습득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2) 수중에 있는 교재 몇 권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みんなの日本語 初級』는 13과, 『신개념일본어 입문편』은 10과에서 다루고 있다.

3) 旅行に行く(여행을 가다), 留学に行く(유학을 가다), 買物に行く(쇼핑을 가다) 등과 같이 일본어의 「に」는 한국어의 「-을/를」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に行く」목적 구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に」의 선행요소에 대한 연구이다. 「に」의 선행요소로는 동사의 연용형이나 동명사(動名詞)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影山(1993),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9), 庵 他(2000), 栗山(2010 : 41) 등).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둘째, 「に」에 대한 연구이다. 보문표지로 보는 입장(莊司 1997, 2012), 후치사(後置詞)로 보는 입장(吉永 2010)과 더불어, 격조사(格助詞)로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다(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9), 庵 他(2000) 등).

셋째, 이 구문은 <목적>을 나타내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과의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한 논문이다(前田(1995)<sup>4)</sup>,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8) 등). 주로 「タメニ、ヨウニ、ノニ」등과의 차이점이 다루어졌다.

넷째, 생성어휘의미론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 新井(2016)등 일반언어학적인 입장에서의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의 대조연구를 다룬 金(2014) 등이 있다. 金(2014)은 「にいく」「にしにいく」와의 차이점 및 한국어 「러 가다」「을 가다」와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명사에 관해서는 한어명사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찰의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に」의 선행요소에 오는 명사를 다루고자 하므로, 첫 번째 선행연구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9 : 96), 庵 他(2000 : 215-216)는 「母が買い物に行く。おじいさんが散歩に出かける」와 같은 예문을 들어 동작성 명사의 경우만 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栗山(2010 : 41)또한 「仕事に行きます/買い物に行きます/掃除に行きます/散歩に行きます」와 같은 예문을 들어, 「する名詞+に行く」의 형태로 명사를 제한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분류는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8:188)의 지적으로, 「仕事」「食事」와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명사(動きを表す名詞), 「講演会」「結婚式」와 같은 사태<sup>5)</sup>를 나타내는 명사(出来事を表す名詞)로 나누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모든 동작성 명사(動きを表す名詞)와 모든 사태 명사(できごと名詞)가

4) 前田(1995 : 458)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タメニ : 同一主体による動作や、「必要だ・有用だ」という判断を表す。述語の、目的を表す。  
 ヨウニ : ある動作の後に結果的に生じてくる事態を提示する。  
 シニ : 移動動作とその目的を同時に表現する。  
 ノニ : 必要・使用・有用を表す述語の補語として、目的を表す。  
 5) 일본어의 「できごと」명사를 사태명사로 옮겼다. 일본어의 「できごと」명사는 영어의 eventive noun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역으로 사태 명사라 하였다.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것은 아니다.

(7) \*到着<sup>6)</sup>に行く。 \*事故に行く。 \*地震に行く。 \*引退に行く。

또한, 실례를 보면 예(8-10)과 이 「映画、ランチ、ご飯」등이 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들 명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동작성 명사도 아니며, 사태 명사도 아니다. 즉, 선행연구의 지적과는 달리, 동작성 명사, 사태 명사 이외의 명사도 「に行く」목적 구문에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 だから、その日ヨークから映画に行かないかと誘いがあつた。(なみだ)(=예(4))

(9) 「私たち、これからランチに行ってくるわ」(夜)(=예(5))

(10) 中野のいい同僚はマック鈴木にご飯に行こうと誘われたみたい。(週間)(=예(6))

이상과 같이 「に行く」목적 구문에 쓰이는 명사와 관련하여서는 간단한 언급에 불과하거나, 일본어 교재에서 지적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sup>7)</sup>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몇몇 예문만을 제시하고 동작성 명사가 올 수 있다고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례를 통해 목적을 나타내는 「に行く」목적 구문에 올 수 있는 명사를 살펴봄으로써 「に行く」목적 구문의 특징을 명백히 하는 데 있다.

### 3. 연구대상 및 방법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함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6) 言語学大辞典(1996:1332)에 따르면 「到着」는 대표적인 동작성 명사이며, 「事故」는 대표적인 사태 명사이다. 본고에서는 이 부분은 지적에만 그쳤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7) 薛(2014)에서 유사한 지적은 있었다. 薛(2014)은 동작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이동동사의 카테고리를 밝히고자 한 논문으로, 동작성 명사 외에도 二격에 올 수 있는 명사로 もよおし명사(본고에서의 사태명사)와 よめ、むこ、トイレ처럼 의미가 바뀌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森山(1988:268-270)에서도 언급이 있었음.

- (11) ラオスや北ベトナムへ自由に行き来できる。 (スペシャル)
- (12) 米国ビザも取得できそうなので、5月GW明けに行きますね、と言った。 (yahoo! 知恵袋)
- (13) 日比谷公園に行ったら驚いたね。 (安吾)

예(11-13)과 같이 な형용사(형용동사)의 부사형, 시간명사와 장소명사<sup>8)</sup>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동사의 ます형은 다음의 예(14)(15)와 같이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예(15-1)과 같이 격체제를 유지하는 경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影山(1993:29)는 용도를 나타내는 「~用」과의 결합가능성을 통해 동명사(동작성 명사)와 명사와의 공통점, 동명사와 동사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sup>9)</sup>.

- (14) 最近娘の帰りが遅くて心配だ。
- (15) 父は魚釣りに行った。 (15-1) 父は魚を釣りに行った。

예(15)는 「魚釣り用」가 가능하므로 동명사이나, 격조사「を」와 함께 쓰인 예(15-1)은 「\*魚を釣り用」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알 수 있다.

고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례를 통해 「に行く」목적 구문에 올 수 있는 명사를 분류하는 것이다. 분류에 앞서, 동작성 명사와 사태 명사에 대한 분류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言語学大辞典術語編』(1996:1332), 森山(1988 : 268-270), 影山(1993:22-30)를 참고하였다.

『言語学大辞典 術語編』(1996:1332)에서는 「発見、勉強、散歩、到着」와 같이 「~する」(サ変動詞の語幹)가 가능한 명사를 動作名詞(action noun), 「試験、会議、事故」와 같이 「~でがある」가 가능한 명사를 出来事名詞(eventive noun)로 분류하였다.

森山(1988:268-270)는 「出来事名詞とは、その意味が必ずある時空に限定づけられる名詞であり、背後に、関連する動詞の表現を必ず持つ名詞である」라고 규정하며, サ変動詞의 語幹이 될 수 있는 「仕事、研究、工事、攻撃」와 같은 명사를 전형적인 예로 들었으며, 「運動会、結婚式」(「会」「式」「パーティー」 등이 붙는 명사, 「~をする」가 가능한 명사)와 같은 명사도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森山(1988:268-270)는 出来事名詞는 「ホテルへパーティーに行く」와 같이 동작목적어동구문에도 올 수 있으며, 「~を始める」「~を忘れる」「~が続く」의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森山(1988:268-270)의 出来事名詞는 言語学大辞典 術語編

8) 장소 명사의 경우라도 「トイレに行く」와 같은 경우는 연구대상에 넣어 다루었다. 장소 명사에 대해서는 4.2절 명사의 특징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9) 影山(1993 : 29)自転車用、連絡用、\*食べ用를 들어, 명사와 동명사와의 공통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1996:1332)의 동작성 명사, 사태 명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影山(1993 : 22-30)는 動名詞(VN:verbal noun)에는 「散歩、研究、徹夜」(漢語), 「立ち読み、夜遊び、買物」(和語), 「テスト、カット」(洋語)가 속함을 지적하고, 「する」와의 결합가능성, 「~方法」와의 결합가능성을 통해 동명사와 명사와의 차이점<sup>10)</sup>을 지적하였다. 影山(1993 : 22-30)의 動名詞(VN:verbal noun)또한 言語学大辞典 術語編(1996:1332)의 동작성 명사, 사태 명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명사분류와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한 고찰이 요구되나, 현 단계에서는 동작성 명사와 사태 명사로 분류한 『言語学大辞典 術語編』(1996:1332)를 따르며, 테스트프레임으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現代日本語書き言葉コーパス(BCCWJ)』에서 예문을 수집하여, 일본인 모어화자와 함께 내성판단을 하여 「に行く」목적 구문에 쓰이는 명사를 추출하였다. 선행연구 등의 판단기준에 따라 추출한 명사를 분류한다.

둘째, 앞의 명사 분류를 토대로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동작성 명사와 사태 명사 이외의 <그 외 명사>로 처리한 명사들의 특징을 고찰한다.

<그 외 명사>로 처리된 명사의 의미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명사들이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적인 설명 등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명사

### 4.1 명사의 분류

선행연구의 명사 분류의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동작성 명사, 사태 명사, 그 외 명사의 대표로 각각 「連絡」「講演会」「机・医者」를 들어 판단 기준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10) 「する」와의 결합가능성  
(VN)散歩する、研究する、徹夜する/立ち読みする、夜遊びする、買物する/テストする、プリントする  
(N)\*医者する、\*自動車する、  
「~方法」와의 결합가능성 VN+方法(治療方法、研究方法) \*N+方法(\*医学方法、\*柔道方法)

<표1> 공기 가능한 명사의 분류

판단기준 \ 종류	동작성 명사 (連絡)	사태 명사 (講演會)	그 외 명사 (机·医者)
~する		×	×
(場所)で~がある	×		×
~を始める(~をする) ~を忘れる ~が続く			11)
~方法		×	×

『現代日本語書き言葉コーパス(BCCWJ)』(少納言)에서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명사를 수집하여 분류한 결과<sup>12)</sup>는 다음의 <표2> 동작성 명사, <표3> 사태 명사, <표4> 그 외 명사이다.

<표2> 동작성 명사

あいさつ、応援、お参り、お宮参り、遺骨拾い、往診、墓参り、買(い)物、相談、見舞い、買い出し、確定申告、見学、見物、検診、献血、(お)稽古、撮影、食事、散歩、仕事、(ヴィザの)申請、投票、(中国、社員、海外)旅行、修行、(病気の)治療、出稼ぎ、ピクニック、デート、下見、一人旅、聴講、外食、交渉、ドライブ、引き取り、洋服買い、面会、面接、お見舞い、視察、捜査、猟、検査、密会、診察、見回り、相談、お花見、報告、検診、取材、ハイキング、営業、旅、(魚、夜)釣り、捜査、散髪、出張、抽選、ホームステイ、配達、(アル)バイト、(サマー、オート)キャンプ、抗議、炭焼き、みかん(イチゴ、潮)狩り、懲役、調査、回診、弔問、撮り直し、尻拭い、仕入れ、草刈り、ゴミ捨て、登録、レッスン
-------------------------------------------------------------------------------------------------------------------------------------------------------------------------------------------------------------------------------------------------------------------------------------------------------------------------------------------------

11) 机を始める(×)、机をする(×)、医者始める( )、医者をする( )、机を忘れる( )、医者忘れる(×)、机が続く( )、医者が続く( ) 등과 같이 일률적이지 않아, 로 표시하였다. 다만,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명사「トイレ」는トイレ始める( )、トイレをする( )、トイレ忘れる( )、トイレが続く( )와 같이 모든 테스트프레임을 통과하였다. 그 밖의 명사에 속하는 명사에도 단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に行き」5881건, 「~に行き、」1045건, 「~に行って」8198건, 「~に行って、」932건, 「~に行った。」946건, 「~に行った」6881건, 「~に行こう」1476건, 「~に行く」9443건이 검색되었다. 그 중 각 500건씩을 대상으로 목적 구문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추출(이 판단은 결국 논문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필자가 선택하였고 모호한 경우는 일본어네이티브의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더 많은 예문과 양케이트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하였다.

## &lt;표3&gt; 사태 명사

運動会、飲み会、忘年会、二次会、展覧会、説明会、(お)食事会、保護者会、(反戦)集会、大会、花火大会、カラオケ大会/ 結婚式、葬式、卒業式 / ジャニーズフィルムフェスタ/ ブライダルフェア、イタリアフェア/ オンリーイベント/ ディナーショー/ ~콘、コンサート、ライブ、ゼミ、セミナー、パーティー、お祭り、合コン、披露宴、バーゲン、集まり、(世界の地震)会議、(家元の)通夜、授業

## &lt;표4&gt; 그 외 명사

ご飯、飯、昼食(朝食、夕食)、ランチ(식사)  
 回転ずし、お茶、天ぷら、buffet (음식)  
 空手、ダイビング、トレッキング、ツーリング、サイクリング、ボーリング、海水浴、水泳、ゴルフ、スキー、(モーターボートの)レース、競艇(스포츠)  
 歯医者、医者、ディーラー/ 嫁、婿、養子(직업)  
 映画、宝塚、ミュージカル(공연)  
 便所、トイレ、ジム、学校、プール、パチンコ、眼科、病院、温泉、カラオケ、ベッド、エステ(장소)  
 おしっこ、お礼、ワーホリ、兵隊 <그 외>

## 4.2 명사의 특징

동작성 명사와 사태 명사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어 왔던 바, 본고에서는 분류에 그치고 주로 <그 외 명사>를 중심으로 명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그 외 명사>에 속하는 명사는 어휘적인 의미에 따른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ご飯、飯、昼食(朝食、夕食)、ランチ」와 같은 <식사명>, 「回転ずし、お茶、天ぷら、buffet」와 같은 <음식명>, 「空手、ダイビング、トレッキング、ツーリング、サイクリング、ボーリング、海水浴、水泳、ゴルフ、スキー、(モーターボートの)レース」와 같은 <스포츠명>이다. 그리고, 「歯医者、医者、ディーラー/ 嫁、婿、養子」의 <직업명><sup>13)</sup>, 「映画、宝塚、ミュージカル」와 같은 <공연명>, 「便所、トイレ、ジム、学校、プール、パチンコ、眼科、病院、温泉、カラオケ、ベッド」의 <장소명>, <그 외>로 분류할

13) 「歯医者、医者、ディーラー/ 嫁、婿、養子」를 <직업명>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즉, 앞의 3단어는 「歯の治療を受けに行く」와 같이 수동적인 목적어나, 뒤의 3단어는 「嫁になるために行く」와 같이 능동적인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수 있다.

이들 명사는 <동작성 명사>, <사태 명사>와 달리, 선행연구에서 「に行く」목적 구문과 공기 된다고 지적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다. 이런 명사들이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언어생활에서 등장하는 이상 사용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田島(2018)는 「お茶する」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若者言葉로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非動作性名詞+する」라는 용법으로 파악하고, 그 특징과 분류를 시도한 논문이다. 「いかにもNらしい行為をする」 「いかにもNらしい様子・状態」 「まるでNのような行為をする」 「まるでNのような様子・状態」 「特定の行為とそれに連続・平行して行なわれる行為」로 5분류하였는데, 그 중 「特定の行為とそれに連続・平行して行なわれる行為」에 해당하는 명사로 40개의 단어를 들었다. 이에 속하는 「朝マック、おにぎり、お茶、お昼ご飯、ごはん、ランチ/お風呂、カジノ、カフェ、クリニック、ゲーセン、トイレ」는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하는 <그 외 명사>와의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즉, 앞의 6단어는 <음식명>에 속하며, 뒤의 6단어는 <장소명>에 속한다. 모든 명사가 실제 「に行く」목적 구문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음식명>의 경우 성립가능하며, <장소명>의 경우도 성립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러한 명사들이 공기 가능한 이유는 명사를 어떤 식으로 인지하느냐와 상관된다는 점이다.

어떤 단어에서 상기되는 지식의 총체를 그 단어의 의미로 채용하는 <백과사전적의미>(初山 (2014:72-97) 「百科事典の意味(観)」(encyclopedic meaning)とは、「その語から想起される(可能性がある)知識の総体」のことである)라고 한다. 初山(2014:72-97)에 따르면 이 백과사전적의미로 상기되는 의미는 개인 레벨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사하게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특정인이 갖게 되는 요소도 있다고 한다. 또한 중심적인 요소부터 주변적인 요소까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백과사전적의미의 중심성이 다르거나, 개인 레벨의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백과사전적의미>는 「に行く」목적 구문 설명에도 유효하다.

- (16) お友達とお茶に行く時はル・スークのベージュユニットとヴィトンのバッグを使っていつもよりも大人っぽくして。 (「)
- (17) 「どうでしょう、今夜映画に行くのをやめてはまずいでしょうか」 (謎)

예(16)의 「お茶に行く」는 단순히 「お茶を飲みに行く」를 생략한 표현이라는 설명도 가능하

지만, 「お茶」는 「飲む物」라는 백과사전적의미의 중심적인 요소가 기능하여,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17)의 「映画に行く」또한, 「映画を見に行く」의 생략표현이 아니라 「映画」는 「見るもの」라는 중심적인 요소가 기능하여, 성립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외 명사>에 속하는 명사들의 어휘적인 분류가 일본어의 기초동사인 「食べる、見る、やる(する)」를 요하는 명사라는 사실도 관련이 있다. <그 외 명사>는 아니나, 「授業」의 경우에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18) こないだからの風邪が一向に治らないで、授業に行ったら先生にこう言われました。

(Yahoo!ブログ)

(18-1) 中学1年生のあるクラスに最初に授業に行った日、生徒達は「わあ、優しそうよかった」と拍手をしてくれた。(中学英語)

예(18)과 예(18-1)은 같은 「授業に行く」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는 예(18)이 「授業を受けに行く」라는 의미인 반면, 예(18-1)은 「授業をしに行く」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18)은 「先生にこう言われました」라는 문맥을 통해, 예(18-1)은 「生徒達は「わあ、優しうよかった」と拍手をしてくれた」라는 문맥을 통해, 입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授業」라는 명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받는 자>와 <수업을 진행하는 자>가 필요하고 어느 입장이 일반적인가 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레벨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18), (18-1)과 같이 의미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그 외의 명사>에 속하는 명사들은 동작성을 가지지 않은 명사가 동작성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行く>」목적 구문에서 일시적으로 동작성이 표면화되어 동작성을 포함한 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田島(2018)의 <非動作性名詞+する>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표1>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외 명사>에 속하는 명사들은 동작성 명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行く>」목적 구문과 <非動作性名詞+する>에 쓰이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이 구문에서 동작성을 표면화<sup>14)</sup>하기 때문이다.

(19) 동명사(동작성 명사)의 경우 : 勉強方法、リサーチ方法

(19-1) 그 외 명사의 경우: \*映画方法、\*ご飯方法

影山(1993:27)

14) 주1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외 명사>도 단계성이 있으므로, 동작성을 표면화하기 쉬운 <그 외 명사>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 현단계에서는 <음식명><식사명><스포츠명>등이 동작성을 표면화하기 쉽다는 정도의 지적에 그치고자 한다.

奥田(1985:3-20)는 의미의 종류를, 「自由な意味」와 「連語の構造にしばられた意味(構造的に  
 しばられた意味)」로 분류하였다. 동작성 명사도 사태 명사도 아닌 그 외의 명사가 「に行く」목적  
 구문이라는 구조에 사용되어, 일시적인 동작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奥田(1985:3-20)의 「連語の構  
 造にしばられた意味(あるいは構造的にしばられた意味)」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소명사>의 경우는 「に行く」목적 구문이라는 구조에서 항상 목적의 의미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20) ときどき, トイレに行っただけなのに尿意を催す場合がある。 <自然>

(20-1) トイレに行っ、「小」をする時、座って用を足すのは、ダメですかね??

<Yahoo!知恵袋>

예(20), (20-1)은 같은 장소명사 「トイレ」를 사용한 「トイレに行く」가 쓰였으나, 예(20)은  
 문맥의 「尿意を催す」로 인해 「用を出しに行く」라는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  
 나, 예(20-1)은 「「小」をする」라는 문맥을 통해 「トイレという場所に行く」라는 단순 이동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소명사>의 경우는 田島(2018)의 「非動作性名  
 詞+する」에 비해 일시적인 동작성의 표면화가 항상적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に行く」  
 목적 구문 자체에 「行く」라는 이동동사가 존재함으로 인해, <장소명사>의 경우 <도착점>으로  
 의 해석이 우선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소명사>의 경우도 <장소명사>에서 행해질  
 수 있는 주된 동작성이 문맥의 도움 등으로 인해 표면화되거나, 개인 레벨의 백과사전적의미  
 에 따라 충분히 목적 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장소명사와 그 장소에서 행해지는 행위와의  
 목적성(トイレvsおしっこ, 学校vs授業, 病院vs診察(治療))은, 직업명사와 직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성(歯医者vs歯の治療)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명가능하다.

이상,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명사를 실례를 통해 수집하여, <동작성 명사>,  
 <사태 명사>, <그 외 명사>로 분류한 후, <그 외 명사>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외 명사>가 「に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가능한 이유는 어휘적인 의미와 함께, <백과사전적의  
 미>, 구조에 따른 일시적인 동작성의 표출 등으로 설명하였다.

## 5. 나오며

본고에서는 「に行く」목적 구문에 올 수 있는 명사의 종류를, 실례를 통해 분류, 분석하였다.

공기 가능한 명사는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동작성 명사>와 <사태 명사>가 올 수 있으며, 이에 속하지 않는 <그 외 명사>도 공기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명사>의 특징으로는 <식사명(ご飯、飯、昼食(朝食、夕食)、ランチ)>, <음식명(回転ずし、お茶、天ぷら、buffet)>, <스포츠명(空手、ダイビング、トレッキング、ツーリング、サイクリング、ボーリング、海水浴、水泳 등)>, <공연명(映画、宝塚、ミュージカル)>, <직업명(歯医者、医者、ディーラー/嫁、婿、養子)>, <장소명(便所、トイレ、ジム、学校、プール、パチンコ、眼科、病院、温泉、カラオケ 등)> 등 어휘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러한 명사들이 공기 가능한 이유는 명사의 <백과사전적의미>에 따른 것이며, 「<に行く>」목적 구문이라는 구조에서 임시적으로 동작성을 표면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물론, 명사에 따라 그 정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지적에만 그친 「\*到着<行く> \*事故<行く> \*地震<行く> \*引退<行く>」와 같이 「<行く>」목적 구문에 공기 불가능한 동작성 명사와 사태명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자연현상, 이동관련 명사 등에 공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앞으로 코퍼스를 통해 명사의 특성을 밝혀 가설을 세우고, 일본인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와의 대조연구도 진행하고자 한다.

(21) 日本へ何の勉強に來ましたか。經濟の勉強に來ました。 『みんなの日本語』(1998 : 104)

(21-1)\* 일본에 무슨 공부를 왔어요? \*경제 공부를 왔어요

(21-2) 일본에 무슨 공부를 하러 왔어요? 경제 공부를 하러 왔어요

(22) 交渉<行く> ?\*(22-1) 교섭을 가다 (22-2) 교섭하러 가다

<주3>에서 언급한 「旅行<行く>(여행을 가다)」, 「留学<行く>(유학을 가다)」, 「買物<行く>(쇼핑을 가다)」와 같이 한국어의 「(을)를」에 대응하는 경우와 예(21-1, 22-1)과 같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를 통해 일본어의 「<行く>」목적 구문과 한국어의 「(을)를 가다」목적 구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

庵功雄他(2000)『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214-219  
 奥田靖雄(1985)「語彙的な意味のあり方」『ことばの研究・序説』言語学研究会編, むぎ書房, pp.3-20  
 影山太郎(1993)『文法と語形成』ひつじ書房, pp.22-30  
 金玉英(2014)「日・韓両語の移動の目的を表す表現の分析」『比較日本学』第32輯, pp.289-307  
 栗山英樹(2010)「日本語の教え方 第8回」『月刊日本語』23(5)アルク, pp.39-42  
 薛根洙(2014)「『目的の意味』の研究-「に格名詞+移動動詞」を中心に-」『日語日文学研究』韓国日語日文学会, pp.61-83  
 荘司育子(1997)「日本語の補文構造に関する一考察：『vに行く』構文について」『日本語・日本文化』23, pp.39-53  
 \_\_\_\_\_(2012)「助詞『に』の統語的性質について：補文化辞の観点から」『日本語・日文化』38, pp.81-99  
 田島誠也(2018)「非動作性名詞のサ変動詞語幹用法の意味と特徴」『現代日本語研究』大阪大学大学院, pp.18-34  
 前田直子(1995)「スルタメ(ニ)、スルヨウ(ニ)、シニ、スルノニ」『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復文・連文編』宮島達夫・仁田義雄編, くろしお出版, pp.451-459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現代日本語文法2』くろしお出版, pp.95-97  
 \_\_\_\_\_(2008)『現代日本語文法6』くろしお出版, pp.187-188, pp.233-238  
 粕山洋(2014)「百科事典の意味の射程(1)(2)」『日本語研究のための認知言語学』研究社, pp.72-97  
 森山卓郎(1988)「場所表現の類型」『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pp.173-198  
 \_\_\_\_\_(1988)「存在述語の構文」『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pp.266-273  
 吉永尚(2010)「助動詞『ず』の統語論的考察」『園田学園女子大学論文集』44, pp.1-12

<사전류>

亀井孝他(1996)『言語学大辞典 第6巻 術語編』三省堂

<일본어교재>

김희성 외(2006)『신개념일본어 입문편』시사본어사  
 田中よね 他(1998)『みんなの日本語 初級』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용례출전】

現代日本語書き言葉コーパス(BCCWJ) 少納言

논문투고일 : 2020년 12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1월 18일  
 1차 수정일 : 2021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21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2월 17일

---

**<要旨>**


---

**「に行く」목적 구문**

- 공기 가능한 명사의 분류와 특징 -

**이정옥**

본고에서는「に行く」목적 구문에 올 수 있는 명사의 종류를, 실례를 통해 분류, 분석하였다. 공기 가능한 명사는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동작성 명사>와 <사태 명사>가 올 수 있으며, 이에 속하지 않는 <그 외 명사>도 공기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명사>의 특징으로는 <식사명>, <음식명>, <스포츠명>, <공연명>, <직업명>, <장소명>등 어휘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명사들이 공기 가능한 이유는 명사의 <백과사전적의미>에 따른 것이며, 「に行く」목적 구문이라는 구조에서 임시적으로 동작성을 표면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물론, 명사에 따라 그 정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On the “NI IKU” purpose constructions**

- Classification and Features of Nouns -

*Lee, Jung-Og*

It was classified and analyzed through an example about the kind of nouns which can be concurrent with the “NI IKU” purpose construction. The noun by which a concurrence is possible had <action noun> and <eventive noun> of the preceding study, and there were also <other nouns>. It was possible to share<other nouns>, <meal name>, <food name>, <sports name>, <performance name>, <vocational name> and <place name> by the vocabulary-like feature.

I explained that such noun was because the reason that a concurrence is possible depended on <encyclopediaic meaning> a noun has, and it was because action was surfaced in special way by the “NI IKU” purpose construction.